

# 한국 학교 체육교과의 발전 방향성

## - 일본의 부활동 및 스포츠 인프라를 참고하여

---

### 서론

최근 일본 스포츠의 국제무대 성적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합 2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종합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일본은 2011년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5단위의 스포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전략으로서의 스포츠라는 정책 목적을 발표하면서 스포츠 인재 육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책의 성과는 도쿄올림픽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국제무대 성적은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다시 말해 속으로는 퇴보의 길을 걷는 중이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 3위로 마무리하였지만 한국 이전 기록으로 보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93개를 기록하였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42개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인프라 구축 정책 및 학교 체육수업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탐구에서는 축구와 배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인프라를 비교하면서 한일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을 일본의 체육 정책 및 체육 수업과 함께 연관을 지어 한국의 스포츠 발전 및 한국 체육 시간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활동에서는 배구와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본론 : 일본의 스포츠 성장 분석

### 일본의 배구

일본의 배구는 2023년 VNL(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프로배구 실력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배구가 아시아 최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탄탄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일본배구협회에 등록된 팀만 2만 4316개이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실업 및 클럽 등이 포함되어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팀의 수이다. 배구를 접할 기회가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양적인 관점에서 배구를 접하는 인구가 전체 42만명 그리고 고교부는 10만명이다. 이는 대한배구협회에 등록된 전체 인원을 넘는다. 일본의 배구는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배구를 실질적으로 하는 인구 관점에서 양질의 환경을 갖추어 국제무대에서의 성적이 높다.

### 일본의 축구

일본의 축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성적을 마무리했다. 성인 대표팀 성적에 비해 일본의 축구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전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유소년 대표팀은 한국을 상대로 5연속 0:3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은 향후 5년 후 아시아에서 한국과 견줄 최강팀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프로축구 선수 황인범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유소년 축구 인프라, 유럽권 일본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인프라를 호의적으로 언급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성장세 역시 '인프라의 성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은 3962개로 등록되었다. 상대성 비교를 위해 한국은 190팀이 등록되었다. 일본의 축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에는 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란 평가가 있다.

### 일본의 배구와 축구의 공통점 및 일본 스포츠 문화의 강점

일본의 배구와 축구의 공통점은 유소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 시절을 넘어 실업팀, 하부리그 역시 규모가 크고 인프라 구성이 좋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런 문화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일본의 정책에 기인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 1기(1명당 1개의 스포츠)를 의무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스포츠권’ 보장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고 유대감 강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 정책을 펼친 결과 강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의 스포츠 문화는 학생들의 발달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체육시간의 본질을 지킴으로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체육시간

일본의 스포츠 국제무대 성적은 학교체육 인프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이 앞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학생들의 높은 스포츠 참여 비율,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 덕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발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다. 높은 입시 경쟁에 따른 체육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2016년 11~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활동량 조사 결과 대한민국 학생의 운동부족 비율은 남학생 92.4%, 여학생 97%으로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체육시간이 수행평가 위주이며 언론에서는 체육시간을 자습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한국 체육교과 시간의 발전이 시급함을 방증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엘리트 스포츠 중심 문화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이 스포츠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보장받기 힘들게 한다.

### 한국의 스포츠 발전 및 한국 체육교육의 방향성

한국의 스포츠와 한국 체육교육은 일본을 모델로하여 성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1인 1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은 운동부족이 심각하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인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 체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스포츠를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의 운동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발달권 보장과 함께 향후 미래인재 양성에 좋은 단초가 될 것이다. 추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포츠를 전문 산업화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스포츠를 상업적,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스포츠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스포츠 인재 육성 및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결론

이번 탐구활동에서는 일본의 스포츠 성장 원인을 일본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좋은 학생체육 인프라, 성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은 배구와 축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탐구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일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학생 스포츠 참여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일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의 스포츠 국제무대 성적이 더욱 성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높은 학생 운동부족 비율을 기록하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탐구에서는 일본의 학생체육 참여 인프라를 모델로 하여 한국의 스포츠 발전과 한국 체육교과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스포츠 및 한국 체육교과는 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권 보장 및 스포츠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단초로의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 한계점

이번 탐구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번 탐구활동의 자료는 언론 자료를 중심으로하였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 인프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체육교과의 부족함,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 참고문헌

(장태민 칼럼) 항저우, 최악의 성적표 제출한 한국 스포츠

[http://www.newskom.co.kr/view.php?ud=202310101407438614d94729ce13\\_59](http://www.newskom.co.kr/view.php?ud=202310101407438614d94729ce13_59)

그만둘 수 없는 배구…탄탄한 인프라로 성장한 일본 배구

<https://www.inews24.com/view/1632183>

저만치 앞서가는 일본, 점점 벌어지는 격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88>

[학교체육정상화②] 체육은 자습시간? 미국·일본은 어떻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79>

속적 일본에 5연속 0-3 패…한일 축구 격차 벌어지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703009200641>

日축구가 韓보다 세다는 걸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이진구 기자의 對話]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216/117032229/1>

황인범 "한국 축구, 일본처럼 좋은 환경 아니다" 쓴소리…누굴 저격했나

<https://www.news1.kr/articles/?4887712>

[전문가 분석] 일본 축구, 어떻게 해서 강해졌나?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2301100026>

체육 손 놓은 학교… 10대 절반 '운동 부족'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4514863>